

노무사단기 2024 합격수기 공모전

■ 합격 정보

1) 1차 시험

| 노동법1 | 노동법2 | 민법 | 사회보험법 | 선택과목 (과목명, 점수) |
|------|------|----|-------|-------------------|
| 80 | 88 | 76 | 72 | 경영, 52 |

2) 2차 시험

| 노동법 | 인사노무관리론 | 행정쟁송법 | 선택(과목명, 점수) |
|--------|---------|--------|-------------|
| 270.44 | 191.69 | 184.54 | 민소, 169.58 |

〈합격수기 작성란〉

2차시험은 작년 동차로 한 번, 올해 유예로 한 번 응시했습니다.

총 수험기간은 1년 7개월인데요. 일평균 8시간을 공부했고, 3기 들어서는 9~10시간을 공부했습니다.

2024년 2월까지 하루에 4과목을 분배하여 공부했는데, 이후부터는 하루에 2~3과목을 공부했고, 자신 있는 과목과 그렇지 않은 과목의 비중을 3:7의 비율로 공부했습니다.

저는 노무사단기 노동법의 김에스터 선생님과 민사소송법의 김광수 선생님의 강의를 수강했습니다.

0기부터 2기까지는 주1회 휴식을 가졌고, 일요일에 노동법 실강 듣고 온 후에는 온전히 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3기부터는 쉬는 시간 없이 귀가 후에도 조금이라도 공부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독서실에서 집 가는 길, 학원에서 집 가는 길에는 암기 현출 스티어를 통해 카톡 등으로도 자투리 공부를 할 수 있는 상황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노동법 합격 수기〉

1차의 노동법도 김에스터 선생님을 수강했었는데,

첫 수험 진입이기도 했고, 이런 시험 준비가 처음이라 객관식 시험에 많이 어색한 편이었는데,

강의하시면서 객관식 시험의 기초를 자세하게 알려주셔서 어떤 방향으로 공부해야 하는지 방향을 잘 잡을 수 있었습니다.

1차 시험은 3개월이라는 짧은 준비시간에도 불구하고, 에스터 선생님의 강의를 듣고 노동법 80점과 88점이라는 고득점으로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중간에 지치지 말라고 해 주시는 격려의 말씀도 대문자 T인 저에게 너무 찰떡이었어요.

1차 때의 성공적인 결과를 바탕으로 2차도 에스더 쌤과 함께 해야겠다고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탁월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시험 기준으로 학습 방법을 말씀드리자면

0기 때는 인강으로 수강했는데, 릴리즈 되는 날짜에 맞춰서 수강을 했고, 그 외 시간은 범위를 미리 예습하면서 판례의 키워드를 암기해 나갔습니다. 완벽한 암기는 아니었고 쟁점이 던져지면 그 쟁점에 해당하는 판례의 내용이 무엇인지 떠올릴 수 있도록 암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노무사 역대 기출과 변호사시험, 5급 공채 시험의 기출문제를 분석하여 기출된 쟁점을 연도별로 표시하는 작업을 하였고, 이를 통해 쟁점별 중요도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에스더 선생님께서 내 주시는 일일테스트를 성실히 수행했는데, 에스더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간고사 공부하듯이 완벽하게 암기해보고 일일테스트를 써보는 식으로 했습니다. 에스더 쌤 블로그에 정말 하나도 빠짐없이 인증했어요. 이때의 암기가 큰 보탬이 되었습니다.

0기 종강 후에는 감각유지 스터디도 성실히 참여했어요! 감각유지 스터디가 진행되는 중에도 작년에 수강하면서 자료는 받았지만 미처 펼쳐보지 못했던 에스더 쌤의 자료를 혼자 풀어보고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기 때는 온침반을 수강했습니다. 1기 역시 릴리즈 되는 날짜에 맞춰 수강을 했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정말 바빴습니다. 수업을 듣고 복습을 하고 암기를 해보고 일일테스트를 인증하며 바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1기 때는 베이직 사례연습 책도 함께 나가는데 베사연의 기틀을 토대로 모든 사례 문제에 대해 목차를 잡는 연습을 했고, 포섭에 약하여 포섭만 따로 연습하기도 했습니다. 총 3회의 모고를 봤는데, 모고 직전에 알려주시는 범위는 중간고사 준비하듯이 철저하게 준비해 답안을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2기와 3기는 실강을 수강했습니다. 1기와 2기 사이 방학기간은 감각유지 스터디에 참여하여 팀원들과 스터디 숙제를 열심히 수행했고, 2기 때부터 시작되는 매주 모의고사에 대비하기 위해 본격적인 암기를 시작했습니다. 에스더쌤의 교재는 목차화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목차를 기반으로 중요 판례를 키워드 > 흐름 > 디테일 순으로 암기했습니다. 노동법에 대한 실력은 2기 때부터 부쩍 향상했습니다. 왜냐하면 에스더쌤께서 수업시간에 모의고사를 해설하시면서 왜 이런 목차가 나와야 하는지, 어디에 강약조절을 해야 하는지 세세히 알려주시기 때문에 이를 다음 모고 답안에 반영할 수 있도록 철저히 연습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내용이 풍부한 사례집 외에도 핵심서술포인트, 목차시험 등으로 수십, 수백개의 사례 문제를 접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노동법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고, 에스더 쌤만 믿고 가면 평균 이상은 보장되겠다는 자신이 생겼습니다.

결국 이번 2차 노동법에서 에스더쌤이 모의고사로 출제했던 지문이 똑같이 나왔으며(노동법2 1, 2문), 노동법1의 1문은 강력하게 예상하는 쟁점으로 다양하게 연습했던 쟁점 중에 하나가 나와 자신있게 써내려 갈 수 있었습니다. 노무사 시험이 노동법이 중요한 만큼 강사 선택과 많이 풀어보는 연습이 중요한데 에스더쌤은 그걸 만족시켜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동법 연구를 꾸준히 하시면서 출제 기초에 맞는 학습을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민사소송법 합격 수기>

선택과목 모든 강사들의 OT를 들어보고 민사소송법이 제게 잘 맞을 거 같아 김광수 변호사님의 강의를 듣게 되었습니다. 특히 작년에 진행하신 입문특강은 어려운 소송 절차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작년 불합격했던 2차에서는 0기만 듣고 3개월간 기본서만 반복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는 54.35점으로 유의미한 결과는 아니었으나, 당시 문제가 광수쌤께서 모두 중요하다고 강조하셨던 쟁점들이었기 때문에, 올해 2차 준비를 위해 광수쌤을 선택하길 잘했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2024년의 1기가 개강하기 전까지, 작년 강의와 모의고사, 사례집을 반복해서 공부했습니다. 어렵다가도 광수쌤의 사례집을 보면 이해가 되곤 했었기에, 민사소송법의 전체 구조와 흐름을 기억하는 데에 집중했습니다. 또한, 암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하여 단문집을 토대로 하루에 4개씩 외웠습니다. 물론 금방 까먹기도 했지만, 나중에 다시 외울 때 시간 단축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1기 때는 강의 진도에 맞게 예습(단문 암기), 강의 복습, 다음주 모의고사(목차시험) 준비 위주로 공부했습니다. 본격적으로 목차시험을 보게 되면서 사례 문제에 대한 고민이 생겼었습니다. 문제가 묻는 바에 따라 어떻게 목차를 짜야 할지 감이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때부터 광수쌤의 모든 해설과 쟁점관련 꿀팁(ex. A급이다, 전통적으로 중요하다)을 메모해놓고 쟁점을 장악할 수 있도록 이해될 때까지 반복해서 보고 또 봤습니다. 사례 풀이의 흐름은 왜 그렇게 가야 하는지 고민하다 보니, 결국 민사소송법 전체 내용에 대해 흐름과 절차를 어느정도 습득하고 있어야 어떤 흐름이 나와야 하는지 감을 잡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깨닫고 나서 1기 중간부터 2기 시작 전까지 광수쌤의 강의자료, 교재, 강의 내용을 담은 저만의 단권화 노트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작업을 하고 나니 사례 풀이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2기부터 풀답안 모의고사를 볼 때 광수쌤의 애정과 피땀이 담긴 채점평, 모고 해설을 토대로 단권화 노트에 사례 출제 시 풀이 방법을 정리해 놓았고, 이를 공부할 때마다 들여다보고 뜯어도 보고 씹어먹어도 보고 체화 시키려 노력했습니다.

무작정 일반론을 우르르 쏟아내야 하는 줄만 알았기에 손목과 시간의 부담이 컸는데, 어느 순간 광수쌤의 말 대로 사례풀이가 되는 제 자신을 보고 자신감이 붙었습니다.

한편, 단문 문제의 경우에는 광수쌤의 수업을 듣는 다른 수강생들과 암기 현출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광수쌤의 단문 리스트뿐만 아니라, 제 스스로 나올 것 같은 주제를 정해 암기해 나갔는데, 이러한 스터디가 큰 도움이 되어 올해 단문 문제를 당황하지 않고 써 내려 갈 수 있었습니다.

<자신을 믿고 꾸준하면 합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수험에 진입할 때 까지만 해도 내가 과연 1년 7개월 안에 합격할 수 있을까 두려움이 컸습니다. 이런 시험은 상위권 대학을 나온 학생들만 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니 제가 빠르게 합격할 수 있던 비결은 외롭고 슬퍼도 그냥 묵묵히 해 나갔다는 점입니다.

하루하루 해야 할 일을 하고, 강사님들이 시키는 것 성실히 수행하고, 내가 계획한 것 성실히 하다 보면 그날의 공부시간은 다 끝나 있었습니다. 아프고 힘든 날에도 그냥 앉아서 좋아하는 과목이나 자신 있는 과목을 한 번 더

들여다보았고, 그러다 보니 또 집중할 수 있게 되어 하루의 공부시간을 채우곤 했습니다.

주 1회 정도 2기까지 꾸준히 쉬었기 때문에 그 날 위주로 휴식이나 친구들과의 약속을 잡았고 그 외에는 공부나 체력관리에만 집중했습니다. 한번도 귀찮거나 하기 싫다는 단순한 이유로는 쉬지 않았습니다.

목표를 위해서 정진하다 보면 어느 순간 노무사가 되어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모두 힘내세요!